

PHOTO ESSAY

사진산책

이호준 Lee, Ho-Joon | 사진가·대학강사·언론학박사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서울 통의동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전남 포항

구민체육센터 샤워실 옷장을 열 때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옷걸이의 방향이다. 매번 같지 않다. 누군가는 옷걸이 앞면이 왼쪽을 향하도록 걸어두고 누군가는 반대로 걸어둔다. 나는 늘 옷걸이 앞면이 왼쪽으로 향하게 둔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걸린 옷걸이를 보면 약간 거슬린다. 옷을 걸 때면 일부러 익숙한 방향으로 돌려놓곤 한다. 그렇다고 그 거슬림을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옷걸이의 방향은 규칙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가깝기 때문이다. 나의 정돈 방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그저 손이 가는 대로 걸었을 뿐이고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원래 다른 식으로 태어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 습관과 취향의 차이에서 느끼는 거슬림은

생각의 차이를 대하는 태도와 닮았다. 누군가는 질서를 통해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자유를 통해 숨통이 트인다. 이런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한 방향으로 정렬된 옷걸이만 있는 공용 옷장을 상상하기 어렵듯 생각의 방향도 하나로 고정될 수 없다.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다름을 곧바로 선긋기의 이유로 삼을 때다. 사회가 안정되고 성숙해지려면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납득하기 힘들면 그러려니 하고 거리를 두면 된다. 거리를 두는 일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과 다르다. 각자의 방향대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작은 거슬림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어찌면 큰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